

“한국GM 부당 반품 의혹, 법 위반 있나 볼 것”

김상조 공정위원장, “車시장 순정부품, 시장경쟁 제한 효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GM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의혹에 대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하도급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GM이 폐쇄 예정인 군산 공장 조립부품을 반품해, 납품업체의 출도산 우려가 있다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가 맞다”며 해당 의혹을 무겁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처럼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 업체 영향력을 높이는 전속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감사의 눈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속거래에 관해서는

올해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 조사하고 협의가 있으면 직권조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종 차종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시장의 순정부품 문제도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공정위가 재차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순정부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됐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으나, 변화된 산업 환경을 고려해 다시 살펴보겠다”며 “순정부품이라는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삼겹살, 싸게 구입하세요” 27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삼겹살인 판매 대전’을 맞이하여 삼겹살·청/적삼추·마늘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하림, 피오봉사단 5기 모집

3월 20일까지... 동물복지 체험 기회 마련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3월 20일까지 소비자 가족봉사단 ‘피오봉사단 5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림의 ‘피오봉사단’은 인직원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가족 단위 봉사단으로, 2014년에 처음 창단해 올해로 5주년을 맞는 하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다채롭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가족들로 이뤄진 하림 피오봉사단은 ‘교육과 놀이의 연계’가 특징이다. 생생한 동물복지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한다.

오프라인 활동은 주로 주말에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다. 올해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아산생태곤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시스템을 도입한 하림 정음공장을 탐방하고, 태양 전지 선공기를 직접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하림 피오봉사단 5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3월 20일(화)까지 하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rimmark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환경을 사랑하고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총 10가족을 선발하며, 결과는 3월 26일(월)에 하림 블로그 공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피오봉사단 5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가족에게는 하림 선물 세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프라인 봉사활동 참여시 환경단체와 연계해 봉사활동 점수도 부여할 예정이다.

하림 피오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주)하림의 이문용 대표는 “동물복지와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하림 피오봉사단이 5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피오봉사단 5기 활동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실천농가 9곳 4억50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접 영농 활동을 하며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농업법인인 여부는 관계 없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촌·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추천하는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00여곳이다.

농식품부는 이중 영농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1400여 곳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원하게 될 사회적농업 유형은 사회 취약계층에 농업을 체험·교육하는 ‘교육·농업활동’을 통해 건강관리나 요양·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농장 고용을 목적으로 실습을 제공하는 ‘고용’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세가지 유형이 혼재되거나 그 외의 형태를 띠더라도 사회적농업 목적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농가로 9곳을 선정해 총 4억5000만원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하게 된다.

농가 선정에 앞서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에 사회적농업 희망 농가를 불러 추가 사업설명회도 갖는다.

또 사회적농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업과 병행해 ‘한국형 사회적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연말에 사회적농업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인 사회적농업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농업계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GM 회계 큰 문제 없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한국GM 회계점검 결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한국GM의) 회계장부를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만나 회계장부 일부를 받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GM은 비상장법인으로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감리하도록 돼 있다”며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경영 전반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봄 이사철 맞아 3월 전국 5만여 가구 분양 예정

오는 3월 전국에는 신규 주택 5만여 가구 분양을 시작한다. 설 연휴 등으로 이월됐던 물량이 풀린데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 대규모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는 5만345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물량 중 67%가 3월에 집중된다.

이달 설 연휴 등으로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물량이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물량은 1월(1만7620가

구)과 2월(8735가구)과 비교하면 배를 넘어선다.

수도권에 3만721가구, 지방에 2만 2738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과천·김포시 등 그동안 분양실적이 좋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지를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1만6894가구가 집중된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과천위버필드’ 2128가구, 김포시 고촌읍에 ‘힐스테이트리버시티’ 3510가구 등이 예정됐다. /뉴시스

“자동차 민원, 한번에 해결”

내달 1일 '자동차365' 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 1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해준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비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 비교를 할 수 있다.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청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 시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 처리도 가능해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이전·변경등록, 압류 및 저당권 조회·납부·해제업무를 무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365’ 서비스는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동차365’ 검색 후 내려받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기사제보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